



조용현(안양제일교회)

1. 들어가는 말

클라우스 코흐(Klaus Koch)가 “행동-결과의 인과관계”(Tun-Ergehen Zusammenhang)²를 제안한 이후로³ 이 개념은 구약성경의 지혜문학, 그중에

- 1 본 글은 미국의 브라이트신학교(Brite Divinity School)에 제출한 필자의 철학박사학위 논문 “Wisdom’s Wealthy: The Rich in MT Proverbs, LXX Proverbs, and Sirach”의 일부를 발췌하고 요약한 것이다. 또한 제 111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고 여러 학자들의 조언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다.
- 2 코흐의 *Tun-Ergehen Zusammenhang*은 우리말로 종종 ‘인과응보’(因果應報)로 번역된다. 그런데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인과응보’는 불교의 개념으로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을 뜻하면서 코흐가 제안한 개념과는 동떨어져 있다. “인과응보,” 표준대국어사전, (2019.9.24.),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따라서 필자는 *Tun-Ergehen Zusammenhang*를 직역하여 ‘행동-결과의 인과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3 Klaus Koch, “Gibt es ein Vergeltungsdogma im Alten Testament?”,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52 (1955), 1-42.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영어로 번역되었다. Klaus Koch, “Is There a Doctrine of Retribution in the Old Testament?”, James L. Crenshaw(ed.), trans. T. H. Trapp, *Theodicy in the Old Testament* (Issues

www.kci.go.kr

서 특별히 잠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⁴ 행동-결과의 인과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개념이다. 코흐에 따르면, 잠언에서 선하고 지혜로운 행동은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은 옹당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인과관계가 강조된다.⁵ 이후에 다른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행동-결과의 인과관계가 잠언에서 강조된다는 코흐의 주장은 학계에서 폭넓은 동의를 얻어 왔다.⁶ 이러한 행동-결과의 인과관계가 부와 빈곤의 담화에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성립된다. ‘어떤 사람이 부유하다면 그가 선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해서 물질적 보상으로서 재물을 얻은 결과이다.’ 예를 들면, 잠언 14장 24절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먼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고 말하며 15장 6절은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고 진술한다.⁷ 이 두 격언이 진술하듯이 지혜로운 사람과 의인은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질적 보상으로 재물을 소유하여 부유하게 되었다.⁸

in Religion and Theology 4;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57-87. 본 글에서는 영어 번역본을 사용한다.

4 코흐에 따르면 행동-결과의 인과관계가 잠언 1장 18-19절; 4장 17-18절; 5장 22-23절; 10장 3, 6, 16절; 12장 21, 26, 28절; 14장 32, 34절; 16장 31절; 21장 21절에서 발견된다. 윌글, 62.

5 윌글, 64.

6 패트릭 밀러(Patrick D. Miller)는 코흐가 주장한 행동-결과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내재적이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판결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의 판결이나 결정과 별개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밀러는 행동-결과의 인과관계를 하나님의 개입과 징벌로 이해한다. Patrick D. Miller, *Sin and Judgment in the Prophets: A Stylistic and Theological Analysis*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Monograph Series 27; Chico: Scholars Press, 1982), 134. 한편, 다른 학자들은 코흐가 제안한 행동-결과의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기계적이라고 제안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사무엘 아담스(Samuel L. Adams)는 고대 이집트의 교훈집, 구약성경의 지혜문학, 제2 성전 시대의 지혜문학에 나타난 행동-결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아담스는 제2 성전 시대의 지혜문학에서 주된 관심이 현세적 관점으로부터 내세적 관점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변화에 주목하였다. Samuel L. Adams, *Wisdom in Transition: Act and Consequence in Second Temple Instructions* (Supplements to the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125; Boston: Brill, 2008), 273.

7 본 글에서는 한글 성경을 인용할 때 기본적으로 개역개정을 사용한다.

8 본 글에서는 개별 ‘잠언’과 책으로서의 ‘잠언’을 구별하기 위해 전자를 가리킬 때 ‘격언’(格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잠언에서 히브리어 단어 עָשִׂיר(아쉬르/부자)로 지칭되는 인물(들)은 선하거나 지혜로운 행동을 해서 재물을 소유한 것으로 묘사되지 않는다(잠 10:15; 14:20; 18:11, 23; 22:2, 7, 16).⁹ עָשִׂיר(아쉬르/부자)가 사용된 여러 격언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그가 반드시 선하거나 지혜로운 행동을 해서 얻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잠언 28장 6절과 11절의 격언도 부자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더 도덕적이지는 않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은 잠언의 עָשִׂיר(아쉬르/부자)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행동-결과의 인과관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행동-결과의 인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해 왔다.¹⁰ 이것은 모두 잠언의 עָשִׂיר(아쉬르/부자)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행동-결과의 인과관계라는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잠언에서 עָשִׂיר(아쉬르/부자)는 선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해서 그에 대한 물질적 보상으로 받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 잠언에서 עָשִׂיר(아쉬르/부자)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재화를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한 재물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사회-경제적 지배층에 속해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잠언에서 עָשִׂיר(아쉬르/부자)는 선하고 지혜로운 인물

9 본 글에서는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자와 잠언에서 사용되는 '부자를 구별하기 위해 후자를 가리킬 때 히브리어 단어 עָשִׂיר를 따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10 예를 들면, 제임스 크렌쇼(James L. Crenshaw)는 잠언이 부자의 재물을 그가 정당하게 얻은 물질적 보상으로 보면서도 그의 부도덕함을 비판하는 모호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James L. Crenshaw, "Poverty and Punishment in the Book of Proverbs", *Quarterly Review: A Scholarly Journal for Reflection on Ministry* 9 (1989), 30-43. 로저 와이브레이(Roger N. Whybray) 역시 잠언이 보여주는 부와 빈곤에 대한 도덕적 견해가 일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도덕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덕행으로 받는 보상 때문에 부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자는 항상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Roger N. Whybray, *Wealth and Poverty in the Book of Proverb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99; Sheffield: JSOT Press, 1990), 63. 한편, 레이몬드 밴 리우웬(Raymond C. Van Leeuwen)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같이 잠언의 부와 빈곤에 대한 답문은 행동-결과의 인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라고 주장했다. Raymond C. Van Leeuwen, "Wealth and Poverty: System and Contradiction in Proverbs", *Hebrew Studies* 33 (1992), 25-36. 그리고, 천사무엘 역시 "가난한 자에 대한 부자의 횡포 비난 등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동-결과의 인과관계가 עָשִׂיר(아쉬르/부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천사무엘, "잠언 연구의 주요 해석학적 과제들", 『구약논단』 14집 (2008), 161-162.

로 평가되지 않고 어리석고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אִשְׁרָא(아쉬르/부자)는 기능적으로 의인이나 악인과 같이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인지 부도덕한지에 따라 평가받는다. 그런데 אִשְׁרָא(아쉬르/부자)가 어리석고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악한 행동만을 일삼는 인물이라는 뜻은 아니다. 잠언에서 אִשְׁרָא(아쉬르/부자)는 선(善)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데 실패한 사람, 즉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로 기능한다.

따라서 필자는 부자가 잠언에서 도덕적 행위자로 어떻게 기능하고 비판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도덕적 행위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자들은 도덕적 행위자를 구약성경에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 그 후 אִשְׁרָא(아쉬르/부자)의 용례를 중심으로 잠언에서 부자가 어떻게 도덕적 행위자로 묘사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s)

‘행위자’(agent)나 ‘행위’(agency)라는 용어는 철학과 사회학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마커스 쉴로써(Markus Schlosser)에 따르면, “행위자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가리키며, 행위는 이 능력을 실행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¹¹ 이러한 개념을 윤리학에 적용한 폴 테일러(Paul Taylor)는 ‘도덕적 행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적으로 혹은 부도덕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며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도

11 Markus Schlosser, “Agency”, Edward N. Zalta(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all 2015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15),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5/entries/agency>.

덕적 숙고에 관여하는 것, 즉 (도덕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근거를 고려하고 평가하는 능력이다.”¹²

이러한 도덕적 행위자의 개념이 구약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몇몇의 학자들은 도덕적 행위자의 개념을 적용하였는데 그들은 구약성경에서 인간이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주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글라스 나이트(Douglas A. Knight)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차원의 실재를 분명히 하는” 도덕적 행위의 모델을 제안했다.¹³ 나이트는 이러한 도덕적 행위의 모델을 예레미야서에 적용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기만” 때문에 도덕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고 주장했다.¹⁴ 이러한 비판은 잠언에서 אִשׁוּר(아쉬르/부자)가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선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행동하는 데 실패하는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재클린 랩슬리(Jacqueline E. Lapsley)는 에스겔서를 연구하면서 도덕적 자아(moral self)를 “한 가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주장했다.¹⁵ 랩슬리에 따르면, 예언자 에스겔은 인간이 선을 선택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전통적 이해를 문제 삼으며 인간은 “선천적으로 도덕

12 Paul W. Taylor, *Respect for Nature: A Theory of Environmental Ethics* (Studies in Moral,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14.

13 Douglas A. Knight, “Jeremiah and the Dimensions of the Moral Life”, James L. Crenshaw and Samuel Sandmel(ed.), *The Divine Helmsman, Studies on God's Control of Human Events, Presented to Lou H. Silberman*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80), 88.

14 윗글, 90-91.

15 Jacqueline E. Lapsley, *Can These Bones Live? The Problem of the Moral Self in the Book of Ezekiel*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Bd. 301; New York: W. de Gruyter, 2000), 8.

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¹⁶ 따라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져 선을 선택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 새로운 도덕적 자아의 모델을 제시한다고 랩슬리는 주장했다.¹⁷ 에스겔이 비판한 이스라엘의 전통적 이해, 즉 인간은 선을 선택하고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가 잠언의 기저에 있다.

캐롤 뉴섬(Carol A. Newsom)은 히브리어 단어 לֵב(레브/마음)와 רוּחַ(루아흐/영)가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구약성경에서 인간은 도덕적 능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된다고 주장했다.¹⁸ 인간이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뉴섬은 “과도한 욕구, 자기기만, 권위에 대한 불복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¹⁹ 잠언의 אִשּׁוּר(아쉬르/부자) 역시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뉴섬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존 바턴(John Barton)은 구약성경에서 “인간의 도덕적 능력에 대한 낙관주의”가 발견된다고 하면서도 도덕적 행위자가 갖고 있는 도덕적 책임을 강조한다.²⁰ 바턴은 잠언의 어리석은 사람이나 악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지”(無知)하고 “윤리적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제안했다.²¹ 따라서 잠언에서 발견되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 대한 비판은 인간이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강한 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앤 스투어트(Anne W. Stewart)는 “잠언의 인물들은 선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훈련을

16 윗글, 6.

17 윗글, 13.

18 Carol A. Newsom, “Models of the Moral Self: Hebrew Bible and Second Temple Judaism”,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1 (2012), 5-25.

19 윗글.

20 John Barton, *Ethics in Ancient Israel*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71.

21 윗글, 158.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적인 도덕적 행위”의 모델을 제시했다.²² 그러므로 스투어트는 도덕적 자아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격의 교육과 훈련을 강조했다. 스투어트의 견해를 잠언의 אִשְׁרָיִם(아쉬르/부자)에게 적용한다면, 그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는데 실패하는 것이며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존재이다.

위의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구약성경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을 선택하고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된다. 잠언에서 묘사되는 여러 인물들 역시 도덕적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다. 잠언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어리석음이나 사악함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אִשְׁרָיִם(아쉬르/부자) 역시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계층으로 묘사되기 이전에 잠언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잠언의 관심은 אִשְׁרָיִם(아쉬르/부자)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냐에 있지 않고 그가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살펴볼 바와 같이 אִשְׁרָיִם(아쉬르/부자)는 어리석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인물로 묘사되면서 비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 도덕적 능력에 따라 평가를 받는 도덕적 행위자이다.

3. אִשְׁרָיִם(아쉬르/부자)에 대한 잠언의 부정적 묘사

히브리어 단어 אִשְׁרָיִם(아쉬르)는 구약성경에서 물질적 재화를 많이 소유한, “부유한” 상태를 가리키는 형용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명사로 사용되면서

22 Anne W. Stewart, "Moral Agency in the Hebrew Bible",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Religion*, November 22, 2016, 1, <http://religion.oxfordre.com/view/10.1093/acrefore/9780199340378.001.0001/acrefore9780199340378-e-92>.

“부유한 사람(들)”을 뜻하기도 한다.²³ 따라서 אֲשִׁיר (아쉬르/부자)는 구약성경의 다른 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잠언에서 물질적 재화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 혹은 부자들을 가리키며 총 9회 사용된다(잠 10:15; 14:20; 18:11, 23; 22:2, 7, 16; 28:6, 11).

그런데 אֲשִׁיר (아쉬르/부자)에 대한 격언은 그를 단순히 물질적 재화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만 묘사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리차드 클리포드(Richard J. Clifford)가 주장하듯이 잠언은 독자에게 “사실적 자료(factual data)”가 아니라 “하나의 관점”(a perspective)을 제공하기 때문이다.²⁴ 특별히 잠언이 독자에게 제공하는 관점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잠언을 만들어낸 지혜자들(the sages)이 묘사하는 세계에 관한 것이다. 마이클 폭스(Michael V. Fox)가 제안하듯이 개별 격언을 수집하여 잠언이라는 책을 만들어낸 지혜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 격언을 기록하고 조화롭게 구성한 “저자들”(authors)이나 “콜라주 예술가들”(collage artists)에 더 가깝다.²⁵ 이 지혜자들이 잠언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비는 행동-결과의 인과관계를 통한 도덕적 세계의 건설이었다.²⁶ 즉, 지혜롭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벌을 받는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세계이다. 따라서 지혜자들이 건설하는 도덕적 세계인 잠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객관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 행동에 따라 지혜롭고 도덕적인지 아니면 어리석고

23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The New Brown, Driver, Briggs, 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79), 799; Ludwig Köhler and Walter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trans. M. E. J. Richardson (Leiden: Brill, 1994), 896.

24 Richard J. Cliffords, “Reading Proverbs 10-22”, *Interpretation* 63 (2012), 243.

25 Michael V. Fox, “The Social Location of the Book of Proverbs”, Michael V. Fox et al.(ed.), *Texts, Temples, and Traditions: A Tribute to Menahem Haran* (Winona Lake: Eisenbrauns, 1996), 237.

26 잠언의 지혜자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도덕적 세계의 건설은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안근조는 잠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도덕 질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잠언의 현자가 어떻게 기존의 신앙적 흐름을 지혜 전승 틀 안에서 통합시켰는지를 추적”할 것을 제안한다. 안근조, “잠언의 ‘낯선 여자’ 경계를 통해서 본 지혜와 율법과의 관계”, 『구약논단』 25집 (2019), 94.

부도덕적인지로 평가 받는다. 잠언에서 אִשְׁוֹר(아쉬르/부자)는 재물을 많이 소유했으나로 평가 받지 않는다. 잠언의 אִשְׁוֹר(아쉬르/부자)는 재물을 지혜롭고 선한 행동을 하는 데 사용하는지 아니면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하는 데 사용하는지에 따라 평가 받는다.

더욱이 잠언에 있는 אִשְׁוֹר(아쉬르/부자)에 대한 개별 격언은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만을 전달하지도 않는다. אִשְׁוֹר(아쉬르/부자)는 지혜자들이 잠언에서 구축하는 도덕적 세계에서 일관되게 행동하는 하나의 인물로 묘사된다. 지혜자들은 잠언의 본문을 통해 문자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실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여러 비유적인 언어를 통해 하나의 상징적 도덕 세계를 건설하기도 한다. 폴 리코어(Paul Ricoeur)가 제안하듯이 잠언과 같은 시문(poetic texts)은 실재하는 객관적 세계를 가리면서도 또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시각을 열어준다.²⁷ 따라서 잠언의 אִשְׁוֹר(아쉬르/부자)는 현실의 אִשְׁוֹר(아쉬르/부자)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잠언의 본문을 통해 건설된 상징적 도덕 세계에서 지혜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비판되는 인물로 기능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개별 격언에서 אִשְׁוֹר(아쉬르/부자)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때로는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지혜자들이 אִשְׁוֹר(아쉬르/부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일관성은 약화되지 않는다.

1) אִשְׁוֹר(아쉬르/부자)는 지혜보다 재물을 신뢰한다

잠언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 재물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재물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정도를 넘을 때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지나친 소유욕은 도덕적 행위자가 도덕적이며 선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클라우디아 캠프

27 Paul Ricoeur, "Toward a Hermeneutic of the Idea of Revelation", *Harvard Theological Review* 70 (1977), 26.

(Claudia V. Camp)가 지적하듯이, “재물에 대한 욕망은 도덕적 자아의 발달에 있어서 복잡한 요인”이기에 그것은 잠언에서 “허용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지혜에 대한 욕망에 종속되어야만 한다.”²⁸ 잠언 16장 16절은 지혜에 대한 욕망이 재물에 대한 욕망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폭스의 지적처럼, 잠언 16장 16절은 “지혜가 금이나 은보다 낫다”고 하지 않고 “지혜나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한다.²⁹ 이 격언은 지혜를 얻으려는 욕망보다 금이나 은과 같은 재물을 얻으려는 욕망이 더 클 때 어리석고 부도덕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잠언의 אֲשׁוּר(아쉬르/부자)는 지혜에 대한 욕망보다 재물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소유한 재물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다. 그래서 부자는 진정한 안전을 담보하는 야웨를 의지하라는 교훈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먼저, 잠언 10장 15절은 재물이 אֲשׁוּר(아쉬르/부자)에게 어떻게 기능하는지 진술한다. “부자(אֲשׁוּר)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³⁰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³¹ 이 격언에서 재물은 אֲשׁוּר(아쉬르/부자)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으로 묘사된다. 특별히 이 격언은 אֲשׁוּר(아쉬르/부자)가 소유한 “재물”(חַיִּה/혼)을 가리켜 “그의 견고한 성”(עִיר קְרוּיָה/키르얏 옷조)이라고 하면서 외부의 공

28 Claudia V. Camp, “Proverbs and the Problems of the Moral Self”,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0 (2015), 25-42.

29 Michael V. Fox, *Proverbs 10-31: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Yale Bible 18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618.

30 칠십인역 잠언은 히브리어 단어 אֲשׁוּר(말립/가난한 사람들)을 “약한”을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 ἀσθενῶν(아세브/약한 사람들)으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번역은 칠십인역 잠언의 도덕적 경향을 보여주는 예이다. 윌슨, 984.

31 개역개정은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고 번역하면서 상반절의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와의 대조를 더욱 명확하게 한다. 그러나 리차드 클리포드(Richard J. Clifford)와 롤랜드 머피(Roland E. Murphy)가 지적하듯이 히브리어 본문은 하반절(אֲשׁוּר אֲשׁוּר אֲשׁוּר)은 상반절과의 대조를 피하고 일종의 교차(AB//BA)를 보여준다. Richard J. Clifford, *Proverbs: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115; Roland E. Murphy, *Proverbs* (Word Biblical Commentary 22; Waco: Word Books, 1998), 70.

격에서 지켜주는 요새처럼 재물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אֲשִׁירָא(아쉬르/부자)를 지켜준다고 한다.³² 언뜻 이 격언은 אֲשִׁירָא(아쉬르/부자)가 소유한 재물이 견고한 성처럼 그를 지켜주는 현상을 관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견고한 성”이라고 하지 않고 3인칭 남성 대명접미사를 사용하여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재물은 אֲשִׁירָא(아쉬르/부자)의 소유물인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재물은 그것을 소유한 אֲשִׁירָא(아쉬르/부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잠언은 10장 15절과 같이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을 인정하기도 하지만(잠 12:27; 19:4), 재물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한다(잠 11:4; 13:11; 18:11). 브루스 왈트키(Bruce K. Waltke)는 이와 관련하여 재물은 אֲשִׁירָא(아쉬르/부자)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보험의 역할을 하지만 또한 그를 “도덕적 역량의 부족”(moral insufficiency)으로 몰아가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³³ 재물에 대한 잠언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한 왈트키의 주장은 옳지만, 잠언에서 재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³⁴ 중요한 점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의 태도다. 10장 15절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재물은 그것을 소유한 אֲשִׁירָא(아쉬르/부자)를 지켜주는 유익이 있다는 점과, 그렇다고 해서 그 재물이 אֲשִׁירָא(아쉬르/부자)의 선하거나 지혜로운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אֲשִׁירָא(아쉬르/부자)가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는 18장 11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자(אֲשִׁירָ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³⁵ 18장 11절의 상반절은 10장 15절

32 히브리어 단어 אֲ(오즈)는 기본적으로는 사람이나 사물의 “힘”을 뜻하지만, 성(城)이나 도시와 관련될 때는 “방어를 견고히 한” 혹은 “요새화된”을 뜻하기도 한다(예: 사 9:51; 시 61:4; 사 26:1). HALOT, 805.

33 Bruce K. Waltke,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2004), 463.

34 이종근이 제안한 바와 같이 재물은 잠언에서 “장수”나 “부귀”와 더불어 지혜로운 사람이 얻는 보상으로 작용한다. 이종근, “함무라비 법과 잠언 8장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천상회의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3집 (2017), 207.

35 개역개정본은 18장 11절의 하반절을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고 번역하여 부자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는

의 상반절과 똑같지만, 하반절은 가난한 자의 궁핍을 서술하는 10장 15절의 하반절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18장 11절의 하반절은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 느니라”고 진술하면서 עֲשִׂיר (아쉬르/부자)가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뚜렷이 보여준다. 언뜻 18장 11절은 “건고한 성”과 “높은 성벽”이 서로 연결되면서 עֲשִׂיר (아쉬르/부자)가 소유한 재물의 영향력을 10장 15절보다 더욱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³⁶ 그러나 “상상” 혹은 “망상”을 의미하는 מַשְׁבֵּית (마스킷)을 사용하면서 עֲשִׂיר (아쉬르/부자)가 소유한 재물이 건고한 성처럼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상상 속에서나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עֲשִׂיר (아쉬르/부자)는 그의 상상 속에서만 재물의 보호를 받을 뿐 현실에서는 오히려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하고 궁핍에 처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더욱이 바로 앞의 18장 10절은 야웨를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진술하며, 야웨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서 안전을 얻는 사람은 어리석고 불의한 사람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여호와와 이름은 건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이 건고한 망대인 야웨를 의지하면서 그로부터 안전함을 얻는다면, עֲשִׂיר (아쉬르/부자)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건고한 성과 높은 성벽처럼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안전함을 얻는다.³⁷

잠언에서 야웨가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사람, 특히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마주할 결과는 패망이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11:28).” 크리스틴 요더(Christine R. Yoder)가 지적하듯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나 악한 자

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18장 11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그것[재물]은 그부재의 상상 속에서 높은 성벽과 같다”로 직역되면서 재물이 부자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상상이요 망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날카로운 비판을 더한다.

36 윌리엄 맥케인(William McKane)은 부자가 소유한 재물을 “안전을 제공하는 일종의 완충 장치(buffer)”에 비유하면서 재물은 “삶의 불확실성과 위협”에서 부자를 보호해준다고 주장한다. William McKane, *Proverbs: A New Approach*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0), 517.

37 야웨를 건고한 망대에 비유하는 표현은 시편 61편 3절에서도 발견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건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처럼 패망한다.³⁸ 특별히 이 격언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의인과 비교하면서 재물을 의지하여 선한 행동을 하는 데 실패하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모습을 말한다. 잠언에서 야웨가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와 연결되는가? 마치 견고한 성처럼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상상하는 **עָשִׂיר**(아쉬르/부자)이다. **עָשִׂיר**(아쉬르/부자)는 재물에 대한 망상적 신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어 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실패한 도덕적 행위자로 묘사된다.

2) **עָשִׂיר**(아쉬르/부자)는 관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재물은 그것을 소유한 **עָשִׂיר**(아쉬르/부자)에게 친구를 많이 얻게 하고 그들에게서 호감을 사도록 유익을 준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나마 있던 친구들도 떠나는 불이익을 겪는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עָשִׂיר**]는 친구가 많으니라”(잠 14:20),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잠 19:4). 이 두 격언에서 공통적으로 재물은 **עָשִׂיר**(아쉬르/부자)가 관계에서 이익을 얻도록 하게 하며 그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견고한 성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 두 격언에서 **עָשִׂיר**(아쉬르/부자)가 얻은 많은 친구는 그가 관계에서 선과 덕을 베푼 결과로 얻은 보상이 아니다. 단지 **עָשִׂיר**(아쉬르/부자)는 소유한 재물 때문에 많은 친구를 얻는다. 폭스가 제안하듯이, **עָשִׂיר**(아쉬르/부자)가 소유한 재물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고 따르는 친구가 많다.³⁹

특별히 **עָשִׂיר**(아쉬르/부자)가 소유한 재물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확고히 해주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종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잠언 19장 6절은 **עָשִׂיר**(아쉬르/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이용하여 어떻게 종속적인 관계를 굳건하게 만드는지 잘 보여준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

38 Christine R. Yoder, *Proverbs*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9), 140.

39 Fox, *윗글*, 580.

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19장 6절에서 אֲשִׁיר (아쉬르/부자)가 사용되지 않지만, “너그러운 사람”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모두 그들의 사회적 위치나 재물 때문에 친구를 많이 얻게 된다는 점에서 14장 20절과 19장 4절의 אֲשִׁיר (아쉬르/부자)와 비슷하다. “너그러운 사람”으로 번역된 נָדִיב (나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즉 귀족”을 뜻한다.⁴⁰ 그러므로 אֲשִׁיר (아쉬르/부자)와 נָדִיב (나딤/너그러운 사람)은 모두 경제적, 사회적 권력을 지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⁴¹ 한편,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선물”로 번역된 מִתּוֹן (맛단)은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선물”을 뜻하는데(예: 창 34:12; 잠 18:16; 21:14 등) 할롯(HALOT) 사전은 잠언 19장 6절의 מִתּוֹן אִישׁ의 뜻을 “관대한 (generous) 사람”으로 제안한다.⁴² 일반적인 사회 구조에서 하위층이 상위층에게 선물을 주면서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하위층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반 절의 “너그러운 사람”과의 평행 관계를 통해 19장 6절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상위층에 속해 있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능력을 소유한 인물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이렇게 볼 때, 19장 6절의 “너그러운 사람”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모두 사회 구조에서 지배층에 속하며 경제적, 사회적 권력을 지닌 자이며 אֲשִׁיר (아쉬르/부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 주기를 즐겨워하는 이유는 그가 너그럽거나 관대해서가 결코 아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 그들의 환심을 사는 한편, 사회의 계층 구조를 더욱 굳건히 만들기 위해서이다.

40 HALOT, 674.

41 나흐미아스(Nahmias)는 19장 6절의 נָדִיב(나딤/너그러운 사람)를 부자와 동일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격언에서 נָדִיב(나딤/너그러운 사람)는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재물을) 주는 부유한 사람이다.” Fox, 윗글, 650.

42 HALOT, 655.

자신이 소유한 재물로 관계를 통제하는 אֲשִׁירָה(아쉬르/부자)의 모습은 후원자(patron)와 비교될 수 있다. 로날드 심킨스(Ronald A. Simkins)에 따르면, 후원제도(a patronage system)는 “권력과 재화의 불평등한 배분 관계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형태의 자원을 광범위하게 교환함으로써 형성되는 사회관계 제도”이다.⁴³ 후원자(patron)인 귀족이 수혜자(client)인 평민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을 소유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며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귀족은 평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를 맹세하고 그 대가로 평민은 귀족을 섬기기로 서약하기 때문이다.⁴⁴ 그러나 롤랜드 보어(Roland Boer)가 지적하듯이, 후원 제도는 계층 구조적인 사회, 경제 제도 때문에 현실에서는 후원자인 귀족의 이익만을 위해서 운용된다.⁴⁵ 후원 제도의 실상에 비추어 잠언 19장 6절을 읽으면, “너그러운 사람”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와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אֲשִׁירָה(아쉬르/부자)는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도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이 소유한 경제적, 사회적 권력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계층구조를 굳건하게 유지한다.

일견, 친구가 많은 אֲשִׁירָה(아쉬르/부자)에 대한 잠언의 묘사가 그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관련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지혜자들이 잠언에서 제시하는 관계의 덕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אֲשִׁירָה(아쉬르/부자)는 관계의 덕목을 실천하지 않는 인물이다. 티모시 샌도발(Timothy J. Sandoval)의 주장처럼 잠언이 강조하는 관계의 덕목은 친구, 친척, 이웃이 고난에 처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다(예: 잠 17:17; 27:10).⁴⁶ 이 관계의 덕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상황이다. 잠언 14장 21절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43 Ronald A. Simkins, “Patronage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Monarchic Israel”, *Semeia* 87 (1999), 127.

44 윗글, 128.

45 Roland Boer, *The Sacred Economy of Ancient Israel* (Library of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5), 106.

46 Timothy J. Sandoval, *The Discourse of Wealth and Poverty in the Book of Proverbs*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77: Leiden: Boston: Brill, 2006), 197.

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붙잡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고 권면한다. 이 격언은 이웃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관계를 추구하는 행동을 경계하면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를 죄인으로 여긴다. 죄인은 잠언에서 지혜가 부족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는 악한 자(예: 잠 5:22; 10:16; 11:31; 13:6; 21:4 등)로 묘사된다. 따라서 가난하다고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잠언에서 지혜가 부족하고 성품과 행동이 부도덕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반면, 가난한 이웃을 붙잡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칭찬을 받는다. אֲשׁוּר(아쉬르/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로 계층적 구조를 공고히 하는 지배층과 가깝다. 그러나 잠언이 제시하는 관계의 덕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אֲשׁוּר(아쉬르/부자)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의인이나 지혜로운 인물과는 동떨어져 있다.

3) אֲשׁוּר(아쉬르/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한다

구약성경의 다른 책(출 22:22; 레 19:9-10; 신 10:18; 욥 29:11-16; 사 1:17; 암 5:10-15; 스후 7:10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잠언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원리는 기본적인 덕목으로 제시된다(잠 14:21, 31; 17:5; 19:17; 21:3; 22:9; 28:27).⁴⁷ 그러나 잠언은 가난한 자들을 단순히 도와주라고 권면하지 않고 행동-결과의 인과관계를 적용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 때 분명한 보상이 있다고 약속한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잠 22:9). 샌도발과 화이브레이가 제안하는 것처럼, 이 격언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행동이 지혜롭고 도덕적이며 반대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부도덕함을 보여준다.⁴⁸ 그렇다면 אֲשׁוּר(아쉬르/부자)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기본적으로 אֲשׁוּר(아쉬르/부자)는 가난한 자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 “부

47 한동구는 잠언이 예언서와는 다른 수준의 사회적 성찰을 보여주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거나 이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외면하지 말라는 권면”을 전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구, “잠언의 하나님 이해와 성스러움”, 『구약논단』 18집 (2012), 18-19.

48 Sandoval, 윗글, 181; Whybray, 윗글, 35.

자[אֲשִׁירָה]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 22:7). 이 격언에서 אֲשִׁירָה(아쉬르/부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배층에 속해 있다. 또한 אֲשִׁירָה(아쉬르/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엄한 말로 대답한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אֲשִׁירָה]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잠 18:23). 이 격언에서 אֲשִׁירָה(아쉬르/부자)는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머피가 주장하듯이, אֲשִׁירָה(아쉬르/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의 부탁을 무시할 수도 있는 선택권과 특권을 갖고 있다.⁴⁹ 그러나 אֲשִׁירָה(아쉬르/부자)는 그 선택권과 특권을 가난한 자의 부탁을 엄한 말로 거절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가난한 자를 선대해야 하는 잠언의 기본적인 교훈조차 무시하는 어리석음과 부도덕함을 보여준다.

잠언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אֲשִׁירָה(아쉬르/부자)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가난한 자를 선대해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교훈을 전하지 않는다. 잠언은 אֲשִׁירָה(아쉬르/부자)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권력을 이용하여 가난한 자를 어떻게 억압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더 집중한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אֲשִׁירָה)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22:2). 가난한 자와 אֲשִׁירָה(아쉬르/부자)는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가운데 있지만 그들 모두 야웨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22장 2절의 상반절(“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은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해석되었다.⁵⁰ 그런데 “함께 살거니와”로 번역된 단어 נִפְגָּשׁוּ(نيا가슈)는 누군가를 “(중립적인 의미에서) 만나다”(창 32:18; 33:8; 출 4:27; 삼상 25:20; 삼하 2:13) 혹은 “적의(敵意)를 갖고 만나다”(출 4:24; 잠 17:12; 호 13:8)를 뜻한다.⁵¹ 따라서 가난한 자와 אֲשִׁירָה(아쉬르/

49 Murphy, *위글*, 138.

50 폭스는 22장 2절 상반절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여덟 가지로 요약한다: (1) “길에서 우연히 만난다,” (2) “가난한 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부자에게 접근한다,” (3) “서로 충돌하다,” (4) “성문에서 법적 판결을 받다,” (5) “서로 합의 하에 만나거나 모인다,” (6)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다,” (7) “모든 공동체에서 나란히 서다,” (8) “양측 모두 살아있다.” Fox, *위글*, 695.

51 HALOT, 911.

부자)의 만남은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⁵² אֲשִׁיר (아쉬르/부자)와 관련된 여러 격언과 잠언 전체에서의 맥락을 고려할 때 그들의 만남은 적의를 갖고 접근하여 이루어지는, 의도된 만남이다. 레오 퍼듀(Leo G. Perdue)는 이 만남을 가난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אֲשִׁיר (아쉬르/부자)의 학대를 종식시킬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예: 창 32:18; 33:8; 출 4:24-26).⁵³ 물론 퍼듀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가난한 자에게서 더 많은 재물이나 노동을 강요하기 위한 אֲשִׁיר (아쉬르/부자)의 의도된 만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보어는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의도적인 만남을 재화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설명한다. 즉, 부자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지배층의 노동력을 통해 생산된 재화에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과 필연 만날 수밖에 없다.⁵⁴ 따라서 잠언 22장 2절의 אֲשִׁיר (아쉬르/부자)와 가난한 자의 만남은 조우(遭遇)가 아니라 지배층인 אֲשִׁיר (아쉬르/부자)가 계층구조를 재생산하고 강화하기 위한 의도된 만남이며 여기서 אֲשִׁיר (아쉬르/부자)는 “생산 수단을 통제함으로써”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한다.⁵⁵

또한 잠언 22장 16절은 אֲשִׁיר (아쉬르/부자)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착취하고 억압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אֲשִׁיר)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 격언의 상반절은 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하반절은 אֲשִׁיר (아쉬르/부자)가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한다고 묘사한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재물과 권력을 사용하는 אֲשִׁיר (아쉬르/부자)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학대하는”으로 번역된 단어 עָשָׂק (아샤크)는 구약성경에서 “(빛을 갠 수 없는 채무자, 사업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52 McKane, 윗글, 569; Murphy, 윗글, 165.

53 Leo G. Perdue, *Wisdom & Creation: The Theology of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111.

54 Boer, 윗글, 133.

55 윗글, 122.

착취하다”(레 5:21; 신 24:14; 삼상 12:3 이하; 사 52:4)를 뜻한다는 점에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행동과 관련된다.⁵⁶ 더욱이 가난한 자를 확대하는 목적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점은 지금까지 살펴본 אַשּׁוּר(아쉬르/부자)의 모습과 일치한다. 한편, 22장 16절 하반절은 אַשּׁוּר(아쉬르/부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고 진술한다. 앞서 나왔던 격언들(19:4, 6)을 통해 유추해 보면 אַשּׁוּר(아쉬르/부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은 그의 환심을 얻고 그들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22장 16절 하반절은 אַשּׁוּר(아쉬르/부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그는 가난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22장 16절 하반절은 אַשּׁוּר(아쉬르/부자)에게 모종의 이익을 얻으려고 무언가를 주는 행위가 어리석은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אַשּׁוּר(아쉬르/부자)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무언가를 준 사람의 청탁을 거절하고(잠 18:23) 오히려 그를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는 점도 암시한다. 따라서 אַשּׁוּר(아쉬르/부자)는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4) אַשּׁוּר(아쉬르/부자)는 지적이며 도덕적인 교만을 보여준다

지적 교만이 자신의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자기기만을 뜻한다면, 도덕적 교만은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잘못 판단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잠언은 אַשּׁוּר(아쉬르/부자)를 지적 교만과 도덕적 교만으로 가득 찬 인물로 묘사한다. 잠언 28장 11절은 “부자(אַשּׁוּר)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어 아느니라”고 한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로 번역된 히브리어 구문(בְּעֵינָיו בְּחָכְמָה)은 벤 리우웬의 주장처럼 “다른 사람의 평가와는 반대인,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를 가리킨다(잠 3:7; 26:5, 12; 28:11).⁵⁷ 따라서 28장 11절의

56 HALOT, 897.

57 Raymond C. Van Leeuwen, *Context and Meaning in Proverbs 25-27* (Dissertation Series /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96; Atlanta: Scholars Press, 1988), 104.

אֲשִׁירָא(아쉬르/부자)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실상은 전혀 지혜롭지 않아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을 갖고 있다. 또한 하반절은 경제적인 재화는 부족하여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재물은 많아도 교만하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אֲשִׁירָא(아쉬르/부자)보다 더 지혜롭다고 평가한다. 요더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구문 בְּעֵינֵי בְּרָכָם는 잠언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여줄 때 사용된다(잠 3:7; 14:12; 26:5, 12; 28:26).⁵⁸ 특별히 잠언 26장 12절(“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은 미련한 자보다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폭스의 주장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잠언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변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⁵⁹ 잠언에서 어리석음은 지식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지 않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상태” 혹은 “판단력의 부족으로도 덕적인 선택을 왜곡하는 상태”를 뜻한다.⁶⁰ 그러므로 אֲשִׁירָא(아쉬르/부자)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 때문에 미련한 자보다도 더 어리석다고 평가 받는다.

잠언이 אֲשִׁירָא(아쉬르/부자)를 교만하다고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굽은 길을 걷고 비뚤어진 입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오니라”(잠 28:6). 이 격언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부유하면서(אֲשִׁירָא) 굽게 행하는 자”를 비교한다. “성실하게”로 번역된 טָהוּ(토크)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반면(잠 2:7; 10:9, 29; 13:6; 19:1; 20:7),⁶¹ “굽게”로 번역된

58 Yoder, 윗글, 268.

59 폭스에 따르면 잠언 8장 5절(“어리석은 자들이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이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에서는 심지어 “미련한 자들”도 지혜의 초청을 받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언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Fox, 윗글, 797.

60 Michael V. Fox, *Proverbs 1-9: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18A; New York: Doubleday, 2000), 38-39.

61 류선명(Sun Myung Lyu)은 잠언 28장 6절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뜻하는 טָהוּ가 ָּהוּ는 잠언에서 특별

שָׁקֵט(이켓쉬)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비뚤어진 언어(잠 4:24; 6:12; 8:8)와 마음(잠 11:20; 17:20)을 갖고 있거나 비뚤어진 길(잠 22:5; 28:18)을 걷는 사람을 가리킨다.⁶² שָׁקֵט(이켓쉬)가 가리키는 ‘굽고 비뚤어진 사람’은 “도덕적 배교자”이며 “지혜에 귀가 닫혀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⁶³ 28장 6절에 묘사된 אִשְׁוֹר(아쉬르/부자)의 “굽게 행하는” 행동은 그가 갖고 있는 지적이고 도덕적 교만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곧은 길로 걸어가고 올바른 말을 하라는 잠언의 가르침을 무시한다. 따라서 28장 6절에서 אִשְׁוֹר(아쉬르/부자)가 소유한 재물은 그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물질적 보상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אִשְׁוֹר(아쉬르/부자)는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교만한 인물일 뿐이다.

4. 나가는 말

אִשְׁוֹר(아쉬르/부자)는 잠언에서 단순히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만 묘사되지 않으며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선을 선택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데 실패하는 도덕적 행위자로 비판을 받으며 위와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잠언에서 אִשְׁוֹר(아쉬르/부자)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되는데도 학자들은 여전히 אִשְׁוֹר(아쉬르/부자)에 대한 격언을 행동-결과의 인과관계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크넛 하임(Knut M. Heim)은 “압제자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강탈하기 때문에 대개 부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반드시 압제자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⁶⁴ 물론 이 주장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행동-결과의 인과관계라는 틀 안에서 אִשְׁוֹר(아쉬르/부자)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혼동이다. 지금까지 살펴보

히 “광범위한 도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설명한다(예: 잠 2:7; 10:9; 19:1). Sun Myung Lyu, *Righteousness in the Book of Proverbs* (Tübingen: Mohr Siebeck, 2012), 85.

62 HALOT, 1742-1743.

63 Fox, *윳글* (2009), 117.

64 Knut M. Heim, *Poetic Imagination in Proverbs: Variant Repetitions and the Nature of Poetry*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Supplements 4: Winona Lake: Eisenbrauns, 2013), 511.

있듯이, 잠언은 אִשְׁוֹר(아쉬르/부자)를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가지고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고 잠언이 제시하는 덕목을 지키지 않아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도덕적 행위자로 기능한다. 잠언의 אִשְׁוֹר(아쉬르/부자)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그가 소유한 재물은 그가 지혜롭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 얻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5.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안근조, “잠언의 ‘낯선 여자’ 경계를 통해서 본 지혜와 율법과의 관계”, 『구약논단』 25집 (2019), 74-101.
- 이종근, “함무라비 법과 잠언 8장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천상회의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3집 (2017), 190-233.
- 천사무엘, “잠언 연구의 주요 해석학적 과제들”, 『구약논단』 14집 (2008), 147-166.
- 한동구, “잠언의 하나님 이해와 성스러움”, 『구약논단』 18집 (2012), 12-33.
- Adams, Samuel L., *Wisdom in Transition: Act and Consequence in Second Temple Instructions* (Supplements to the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125; Boston: Brill, 2008).
- Barton, John., *Ethics in Ancient Israel*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Boer, Roland., *The Sacred Economy of Ancient Israel* (Library of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5).
- Brown, Francis,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The New Brown, Driver, 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79).

Camp, Claudia V., "Proverbs and the Problems of the Moral Self",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0 (2015), 25-42.

Clifford, Richard J., *Proverbs: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 "Reading Proverbs 10-22", *Interpretation* 63 (2009), 242-253.

Crenshaw, James L., "Poverty and Punishment in the Book of Proverbs", *Quarterly Review: A Scholarly Journal for Reflection on Ministry* 9 (1989), 30-43.

Fox, Michael V., "The Social Location of the Book of Proverbs", Michael V. Fox et al. (ed.), *Texts, Temples, and Traditions: A Tribute to Menahem Haran* (Winona Lake: Eisenbrauns, 1996).

_____, *Proverbs 1-9: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18A; New York: Doubleday, 2000).

_____, *Proverbs 10-31: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Yale Bible 18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Heim, Knut M., *Poetic Imagination in Proverbs: Variant Repetitions and the Nature of Poetry*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Supplements 4; Winona Lake: Eisenbrauns, 2013).

Knight, Douglas A., "Jeremiah and the Dimensions of the Moral Life", James L. Crenshaw and Samuel Sandmel (ed.), *The Divine Helmsman, Studies on God's Control of Human Events, Presented to Lou H. Silberman*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80), 87-105.

Koch, Klaus., "Gibt es ein Vergeltungsdogma im Alten Testament?",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52 (1955), 1-42.

_____, "Is There a Doctrine of Retribution in the Old Testament?", James

www.kci.go.kr

- L. Crenshaw(ed.), translated by T. H. Trapp, *Theodicy in the Old Testament* (Issues in Religion and Theology 4;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57-87.
- Köhler, Ludwig, and Walter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Translated by M. E. J. Richardson (Leiden: Brill, 1994).
- Lapsley, Jacqueline E., *Can These Bones Live? The Problem of the Moral Self in the Book of Ezekiel*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Bd. 301; New York: W. de Gruyter, 2000).
- Lyu, Sun Myung., *Righteousness in the Book of Proverbs* (Tübingen: Mohr Siebeck, 2012).
- McKane, William., *Proverbs: A New Approach*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0).
- Miller, Patrick D., *Sin and Judgment in the Prophets: A Stylistic and Theological Analysis*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Monograph Series 27; Chico: Scholars Press, 1982).
- Murphy, Roland E., *Proverbs* (Word Biblical Commentary 22; Waco: Word Books, 1998).
- Newsom, Carol A., "Models of the Moral Self: Hebrew Bible and Second Temple Judaism",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1 (2012), 5-25.
- Perdue, Leo G., *Wisdom & Creation: The Theology of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 Ricoeur, Paul., "Toward a Hermeneutic of the Idea of Revelation", *Harvard Theological Review* 70 (1977), 1-37.
- Sandoval, Timothy J., *The Discourse of Wealth and Poverty in the Book of Proverbs*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77; Leiden; Boston: Brill, 2006).

- Schlosser, Markus., "Agency", Edward N. Zalta(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all 2015.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15.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5/entries/agency/>.
- Simkins, Ronald A., "Patronage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Monarchic Israel", *Semeia* 87 (1999), 123-144.
- Stewart, Anne W., "Moral Agency in the Hebrew Bible",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Religion*, November 22, 2016. <http://religion.oxfordre.com/view/10.1093/acrefore/9780199340378.001.0001/acrefore9780199340378-e-92>.
- Taylor, Paul W., *Respect for Nature: A Theory of Environmental Ethics* (Studies in Moral,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 Van Leeuwen, Raymond C., *Context and Meaning in Proverbs 25-27* (Dissertation Series /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96; Atlanta: Scholars Press, 1988).
- _____, "Wealth and Poverty: System and Contradiction in Proverbs", *Hebrew Studies* 33 (1992), 25-36.
- Waltke, Bruce K.,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2004).
- Whybray, Roger N., *Wealth and Poverty in the Book of Proverb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99; Sheffield: JSOT Press, 1990).
- Yoder, Christine R., *Proverbs*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9).

검색어

잠언

부자

행동-결과의 인과관계

도덕적 행위자

부와 빈곤

도덕적 세계

The Rich (עָשִׂיר) as Moral Agents in Proverbs

Yong-Hyun Cho

Associate Pastor at Anyang First Presbyterian Church

Brite Divinity School Ph.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onfusion of the logical status of the rich in Proverbs with wealth as a material reward for following wisdom's way in the act-consequence nexus. Since Klaus Koch suggested the act-consequence nexus, many scholars have regarded the negative descriptions of the rich in Proverbs as an inherent ambiguity of the nexus or as an exception to the nexus. In this paper, however, I argue that in Proverbs the rich designated as עָשִׂיר ('*āšīr*') do not just signify individuals who possess economic wealth. The term also points to social-political leaders and those who are moral agents. In Proverbs, the rich are consistently described as moral agents who regularly fail to choose and act for the good.

As the sages uncover the rich's illusion that their wealth can protect them like a fortress (10:15; 18:11), they show that the rich overestimate the value of wealth and, thus, put too

much confidence in it. Because of this misguided trust in wealth, the rich seek their own advantage rather than embody virtues in social relations (14:20; 19:4). The rich's pursuit of their own advantage consolidates the hierarchy between the rich and others by controlling relations with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ir own profits (19:6-7). Especially i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poor, the rich increase their wealth and strengthen control over the poor by oppressing them (22:16). These immoral characteristics serve as evidence of the rich's intellectual and moral hubris: they overestimate their own knowledge and wisdom (28:11).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scholarship of Proverbs by clarifying the role of the rich in the book and, more importantly, in the act-consequence nexus. In Proverbs, the rich are moral agents whose way of life can be morally evaluated by the moral standards that the instructions themselves articulate elsewhere.

Keywords

Proverbs

the rich

the act-consequence nexus

moral agents

wealth and poverty

the moral world

- 투고일: 2019년 9월 30일
- 심사일: 2019년 10월 29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10월 29일

www.kci.go.kr